

石油收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中東産油国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1. 머리말

사 우디 아라비아 등 OPEC (石油輸出國機構) 13개국의 83년 중의 석유 收入은 1,552억 달러로 82년 중의 2,008억 달러에 비해 44% 감소했다. 그 결과, OPEC 전체의 83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297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OECD 전망에 의하면, 올해에도 OPEC는 320억 달러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2. 눈에 띄게 저하된 發注物量

中東諸國에서는 82년부터 개발지출을 억제하는 움직임이 일반화되었고, 선진공업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최근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는 非産油개도국과는 대조적으로 석유불황하에서 뒤처지고 있다. 여기서 개발지출의 억제방식을 보기 위하여 日本의 「중동경제연구소」가 집계한 中東산유10개국의 프로젝트 계약상황을 추적하여 보면, 83년중에 34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23억 달러가 줄었으며, 피크였던 81년의 702억 달러에 비해 半이하로 떨어졌다. 최대감소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로서 82년의 275억 달러에서 83년에는 140억 달러로 130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10개국 중 사우디 아라비아의 세어는 41%로서 여전히 최대이다.

주요 수주국별 세어를 살펴보면, 北아프리카諸國에서 상당한 신장세를 보인 프랑스가 82년 4%에서 83년 14%로, 韓國도 14%에서 20%로 각각 상승하고, 美国, 英国, 이탈리아, 西獨 등이 보합세인 가운데, 사우디 시장에서 후퇴가 현저한 日本은 19%에서 8%로 세어의 저하가 현저하였다. 日本이 후퇴된 원인으로는 가격경쟁에서의 패배, 수출금융·보험면 등에서 프랑스 등에 비해 불리한 점, 日本에서 터부視 돼 오고 있는 군사관계프로젝트가 페르시아灣諸國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동안 中東제국에 의한 대외원조는 본래 비밀의 베일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외원조도 수정할 시기가 왔다』고 하는 공식발언도 나오기 시작하고, 현재 판명되고 있는 아랍원조기관의 83년 상반기의 집행액을 보더라도 전년 동기에 비해 27%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自國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을 선명히 하고 있다. 아랍계 은행의 협조유자액도, 中東제국의 석유수출收入의 격감 외에 국제적인 채무누적 문제도 있어, 83년 중에 70억 달러에 그침으로써 7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유자액보다 30%까지 밀들었다. 또한 거꾸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中東諸國의 借入 움직임이 알제리 등에서 활발해지고 있고, 그 위에 막다른 곤경에 처한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에서는

지금까지 채무상환이 어렵게 되어 상환연기교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3. 사우디, 83년 213억 달러赤字

현재의 석유수요 감소 및 가격저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OPEC 내에서 生産調整役을 다하고 있는 同國의 산유량은 80년 11월에 하루 1,040만 배럴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83년 3월에는 351만 배럴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석유수출收入은 81년의 1,132억 달러에서 83년에는 429억 달러로 그 40%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는 83년에는 마침내 213억 달러의 적자로 전락하여 OPEC 전체의 적자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정세로 사우디정부는 재빨리 82년 하반기부터 개발프로젝트의 발주연기 혹은 수입식용유·냉동육에의 보조금 삭감 등의 긴축조치를 단행하여 82년도 세출을 당초 예산에 비해 22% 감축하고 전년도 실적에 비하여도 16% 줄인 것이다. 금년 4월에 끝날 83년도 예산에서는 1,500억 달러의 풍부한 해외자산의 일부 철수를 전제로 하여 세출을 전년실적에 비해 7% 늘렸고, 석유생산이 약간 회복한 작년 여름부터는 작년 가을 이래 발주를 중지시켰던 플랜트 가운데 라스타누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2백억円 등의 입찰을 재개하였다.

다만, 財政經濟省은 최근 각 省庁에의 통달문서에서 「不要不急한 것을 없애면 공사비의 25%는 삭감가능」 등 절약을 부르짖고 있고, 11월에 입찰이 실시되었던 아시르談水化工事는 당초에 비해 3분의 1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83년 중의 건설수주 통계를 보더라도 전년에 비해 44% 감소하였고, 더구나 최근 감소폭이 6할 이상 큰 폭인데서 경제정세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도 石油收入이 현저하게 줄었고, 재정수지도 82년도에 처음으로 적자결산이 된 이후 83, 84년 兩年度 共히 1월에는 연도예산을 세우지 않고 1개월치의 예산으로 변통하여 가고 있다. 이 때문에 同國정부는 ① 아쥬만談水化工事의 착수중지 외에 루와이스정유공장 확장, 同석유화학·순환유공장 신설 등을 모두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② 보조금을 삭감하여 국내석유제품 가격을 3할 인상하고, ③ 医療有料化를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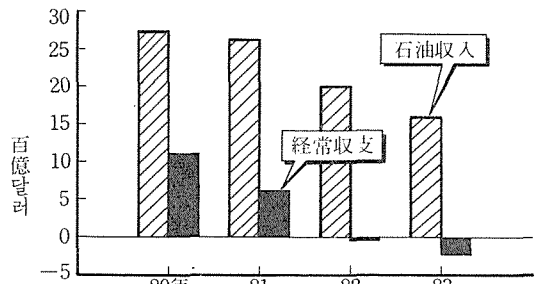
디어 금년초에 실시하는 등의 긴축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들의 내핍조치의 충격을 받고 작년 11월에는 同國 제 3위의 상업은행인 유니온뱅크 오브 미들이스트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의 貸出金回收 지연에 의해 경영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바레인에서도 대폭적인 수입을 수반하는 프로젝트의 착공을 모두 연기하는 외에 작년 중 2회에 걸쳐 합계 4 할이 넘는 휘발유가격 인상을 실시해서 보조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카타르에서는 금년 4월에 끝날 83년도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로 전락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OPEC 생산쿼터 30만 배럴을 대폭 상회하는 40만 배럴의 생산을 단행하여 현물시장에서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작년 말에는 정부내의 외국인노동자 千名을 해고하였다.

그 동안 쿠웨이트는 石油收入을 高利회전의 해외자산으로 운용해 온 결과, 해외로부터의 연간 투자수입이 50억 달러 이상에 달해 재정수지도 실질적으로 흑자이고, 다른 中東諸國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한다. 최근 1년간을 보더라도 걸프오일社의 유럽 6개국의 정유공장과 판매망을 잇달아 매수한 외에 北海석유광구에의 출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OPEC 石油輸出收入과 經常收支〉



〈資料〉 80~82년은 OPEC 統計年報(82년판), 83년은 日本 中東經濟研究所의 推計.

4. 「이·이」戰爭으로 苦境에 처한 이라크

다음에 전쟁당사국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라크는 3년 반 가까이 이란과의 소모전을 지금까지 치러 한층 더 피폐해졌다. 전쟁으로, 3개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터어키 경유의 한 개의 파이프라인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석유수출량이 開戰前의 일일 350만 배럴에서 최근에는 90만 배럴 정도로 급격히 감

소하였기 때문에 輸入代金 지불연장을 日本의 企業 등에 자주 요청하고 있다. 외화준비금도 전쟁 전의 3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가 채 안되는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매월 10억 달러라고 전해지고 있는 戰費조달을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 부터의 원조 외에, 國民으로부터 귀금속류를 供出하고 있고 국민생활 면에서도 물가가 전년에 비해 약 2 배로 급등하고 있는 것 외에 미네랄 워터, 달걀, 우유 등의 입수가 곤란해지고 있다. 덧붙여서, 아랍 諸國과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제도 위기적 상황인 바 소비자물가가 82년도에 2 배, 83년도에 3 배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편, 開戰後 일시적으로 곤경에 빠져있던 이란 경제는 이라크와는 대조적으로 원유수출량이 82년 2월부터의 실질적인 가격인상 판매에 의해 크게 신장되었고 개전시에 비한다면 여유를 되찾아왔다. 이란 中央銀行 총재에 의하면, 79년의 혁명시에 150억 달러였던 대외채무는 거의 상환하였다. 외화준비금도 현재 70억 달러 정도 되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同國은 작년 7월에 총투자액 1,500억 달러의 경제개발新 5개년계획을 자료회의에서 결정하여 의욕적인 발주를 개시하였다. 다만 최근의 전쟁 확대 등 정치·경제 兩面의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中東產油國의 프로젝트契約高〉
(단위 : 억달러)

	80	81	82	83
10 개 국 計	508	702	465	342(▲26)
사우디아라비아	247	218	275	140(▲49)
쿠 웨 이 트	34	36	55	36(▲35)
이 란	126	230	39	8(▲79)
이 라 크	1	,9	11	16(45)
알 제 리	11	14	26	48(85)

註) ① 괄호안은 前年比(%), ▲減)
② 日本 中東經濟研究所가 중동전문지 「MEED」 4개년분의 계약정보를 집계한 것임. 10개국은 이외에 UAE, 바레인, 카타르, 오만, 리비아.

아프리카제국은 외화준비금이 부족한 관계로 대외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말 군사정권이 발족한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수출收入이 피크시에 비해 半減되어 외화준비금은 輸入 1개월분 밖에 없는 반면 대외채무는 2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작년 11월부터 대외채무의 상환연장 교섭을

개시하기는 하였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 1월에 식량폭동이 발생했던 모로코에서는 외화준비금은 1억 달러 이하인데 대해 대외채무는 110억 달러까지 팽창하여 작년 9월 이래 채무연장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국가 정도는 아니지만, 세계 제 4위의 천연가스매장량을 과시하고 있는 알제리에서도 석유·가스收入의 감소로 인해 작년은 3년만에 유로달러 借入을 결행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였다. 국제금융 당국에 의하면, 작년의 15억 달러에 연이어서 금년에도 최저 7억 달러의 차입이 필요하다.

5. 支出抑制 당분간 계속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中東의 비즈니스 환경을 약간 전망하여 보면, 정치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다음 4개의 경제적 사정으로부터도 낙관은 불허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 OPEC제국에의 석유수요 회복은 최근 수년간 완만하고 가격도 보험세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中東제국은 지출억제의 자세를 당분간 견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내년 3월에 끝날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 3차 5개년계획사업은 벌써 거의 발주를 끝내고 次期5개년계획도 의약품 등의 민간 中小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페르샤灣 산유국을 중심으로 인프라스트럭처(사회적 생산기반)의 정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거대한 프로젝트 발주는 현재로서는 늦추어 갈 것으로 보인다.

(3) 페르샤灣協力會 議諸國에서 작년 9월부터 域外에 대한 輸入관세를 인상시킨 외에도 사우디정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정부공사 수주업자에 대하여 그 수주액의 3할 이상을 사우디法人에 하청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등, 수입억제나 公共工事의 自國우선발주의 자세가 강해지고 있다.

(4) 작년 11월에 입찰이 있었던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시르발전소공사에서는 韓國重工業—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2번째 입찰인 日本勢에 비하여 20% 싼 가격으로 수주하였고, 또한 같은 달 이집트원자력발전소공사의 입찰에서도 日本그룹에 대하여 프랑스勢는 23% 싸게 1번 입찰을 획득하는 등, 歐美, 韓國기업과의 수주경쟁이 요즈음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